

ESG경영 위해 뜰뜰 뭉친 경제단체들… 기업 지원 ‘박차’

중기중앙회, ESG 전담팀 꾸려
中企 ESG역량 강화 팔 걷어
대한상의, 수회째 관련 포럼 개최
경총도 상장사협 등과 업무협약

경제단체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더욱 고삐를 죄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꾸려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거나, 관련 포럼 또는 기관간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위한 해답 찾기, 시너지 모색에 나서면서다.

지난달 30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ESG 경영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본부내에 ESG 전담팀을 7월 1일부로 신설한다.

올 초부터 최태원 SK 회장이 새로 이끌게 된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조사본부내에 있던 기업문화팀을 ESG 경영팀으로 바꾸고 조직을 강화한 바 있다.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이 된 최태원 회장이 취임을 전후해 ESG 경영을 거듭 강조했고, 이를 재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도 ESG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내달 중 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빌딩에서 제4차 ESG 경영포럼을 열었다. 포럼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ESG 경영포럼을 열었다. 관련 포럼만 벌써 4번째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세종, 그리고 이날은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ESG 관련 주요 이슈를 놓고 포럼을 진행했다.

네번째 포럼 주제는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으로 율촌이 영상 변호사의 ‘ESG 관련 법집행 및 소송 동향’,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의 ‘ESG가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신사업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신사업 진출 등 경영전략에 ESG를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들도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8.2% 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60.4%가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ESG 경영으로 인한 업무 및 비용 증가,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나 공신력 있는 평가·공시 기준 확립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한국상징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장기업의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고 정책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관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ESG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대세가 되고 있는 ESG가 중소기업 전반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의 내용에는 최근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ESG 평가지표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중소기업에게는 표준화·최소화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부터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 노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정우조 혁신성장본부장

은 “ESG 경영 흐름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ESG가 이미 생존 문제로 다가온 만큼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이를 위해 기업들이 새로운 체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에

펀드 투자에 금융 서비스까지 증권사, ‘메타버스’ 선점 분주

증권가에 ‘메타버스’ 선점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 펀드 출시에 이어 업무협약을 맺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디지털로 구현된 모든 가상세계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를 주도할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메타버스 사용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3차원 가상세계에서 타인과의 소통·교류를 이어간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메타버스 투자 펀드 잇따라 출시
금융교육·자산관리·모의투자 등
관련 회의체와 메타버스 활용 협업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지난 2019년 50조원이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5년 540조원, 2030년 17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메타버스 관련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 에셋자산운용도 메타버스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업계 최초로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를 출시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

어 기업 ▲가상세계 인프라 관련 기업 등을 선별해 투자한다. 페이스북, 앤비디아, 로블록스, 네이버, 하이브, 아마존, 웰컴 등이 꼽혔다.

지난 28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내놨다. 2개의 집중 투자 그룹과 6개의 테마로 투자 그룹 등 총 8개의 테마로 분류해 운용한다.

▲집중투자 그룹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현실 테마 ▲테마로 투자 그룹으로 모빌리티, 온라인 게임, 온라인 페이먼트, 온라인 플랫폼, 럭셔리 상품, 3D 디자인 툴 등을 선별했다.

최병근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사용해 메타버스 테마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관심도와 모멘텀을 결합한 전략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은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메타시티포럼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메타시티포럼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구성한 회의체다.

IBK투자증권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메타시티 지점 개설, 금융교육, 모의 투자, 자산관리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영향으로 메타버스는 전 산업 및 사회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Shinhan

2021년 7월 1일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

ShinhanLife

▶ 패스파인더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라이프를 선보일 신한라이프를 상징합니다

신한라이프